

계획도 준비도 없이...5·18청문회 10월에 가능할까

연말 활동 종료 앞둔 진상조사위 1월 출범 준비위 회의 4차례 뿐 증인·참고인 참여 여부 접촉 등 전혀 없어 '맹탕 청문회' 우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추진을 검토하는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5·18조사위가 청문회를 불과 두 달 남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청문회 준비는커녕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5·18조사위 활동 종료 시점인 오는 12월 26일까지 네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 10월을 놓치면 아예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21일 "위원회 내부에서 오는 10월까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상조사위가 활동 종료 앞두고 있고, 청문회의 바탕이 될 진상조사 또한 대부분 완료 단계에 이르러 사무처 내에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1988~1989년 5공·광주청문회 이후 34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계엄군의 발포경위 및 책임, 가(압)매장 실상 등을 주제로 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정작 5·18조사위 내부에서는 10월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조사위 청문회 준비소위원회조차 지난 수개

월동안 관련 논의를 전혀 못했기 때문이다.

5·18조사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준비소위를 발족한 후 한 달여간 네 차례 회의를 한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 주제도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증인·참고인 접촉 및 참여 여부 교섭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5·18조사위 사무처는 청문회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까지 준비소위에 '진상조사 현황 보고'를 하기로 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탓에 전체적인 청문회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올스톱'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5·18조사위가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실상 청문회 무산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20년 5월 의결된 5·18조사위 조사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1차 년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매년 수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2차년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청문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로 기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후 5·18조사위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 아예 4차년도에 청문회 일정을 몰아놓기로 했다. 1차년도부터 분기별로 청문회를 열어보아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는 의견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에 관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청문회를 진상조사 수단이나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간의 조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결국 5·18조사위는 출범 4년째인 지금까지도 청

문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했고, 임기종료를 4개월 앞두고 청문회 준비부터 결과 정리, 추가 조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5·18조사위 안팎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려다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렵사리 10월에 맞춰 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만한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준비소위 의결만 이뤄지면 10월에도 충분히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청문회에 올릴 세부 주제만 정해지면 증인·참고인 지정 및 심문서 작성, 증인 출석 여부 체크, 조사위원 배정 등은 금방 진행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을지연습 행정기관 이동 훈련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2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구청에서 '2023년 을지연습 행정기관 이동 훈련'을 하며 비밀문서 상자를 옮기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경찰, 현장 치안 담당할 순경이 없다

광주 정원 25%·전남 절반 수준 결원 충원 안돼...간부급은 넘쳐

광주·전남에서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순경 정원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문자마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순경은 정원의 25%만 채우고 있고 전남은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이어서 치안공백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경주 상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은 총 3842명으로 정원(3722명)보다 120명 가량 많았다.

하지만 총경(정원 19명, 현원 22명) 경정(정원 104명, 현원 134명) 경감(정원 287명, 현원 856명) 경위(정원 437명, 현원 1366명)는 정원보다 많은데 반해 현장에 주로 투입되고 비(非) 간부로 분류되는 경사·경장·순경은 결원이 충족되지 못했다.

경사는 정원(789명)보다 184명 적은 605명, 경

장은 정원(807명)보다 395명이 적은 412명,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은 정원인 1110명보다 832명 적은 278명에 그쳤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정원은 물론 현장인원도 부족했다. 전남청 소속 경찰 정원은 6068명이지만 현원은 40명 부족한 6028명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간부급인 경정은 정원(115명)보다 24명 많은 139명이었고 경감은 정원(518명)보다 750명 많은 1268명이었다. 경위는 정원(918)보다 1323명 많은 2241명이었다. 간부급은 현원이 정원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경사는 정원 1457명보다 794명 적은 663명으로 정원의 절반에 못미쳤다.

경장은 정원 1344명보다 575명 적은 769명이었고 순경 역시 정원인 1431명보다 698명 부족한 733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찰 조직이 머리만 크고 팔다리 없는 부실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경찰보다 범죄 현장에 대응할 실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는 정원(789명)보다 184명 적은 605명, 경

살인·음주운전 경합범 '윤창호법' 위험 났어도 형 감형 안돼

광주지법 순천지원 15년형 유지

음주운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60대 경비원이 윤창호법 위험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받았지만 감형이 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의 징역 15년형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여수 옹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

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현장의 경비원인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뒤라"라는 말을 하자 집으로 돌아가 흥겨운 행거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효력이 상실돼 지난 3월 A씨는 재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재심결과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위험 결정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살인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나 죄질의 차이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해 특별히 변동된 양형 요소가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 상습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전남경찰이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A씨로부터 지난 4일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0분께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회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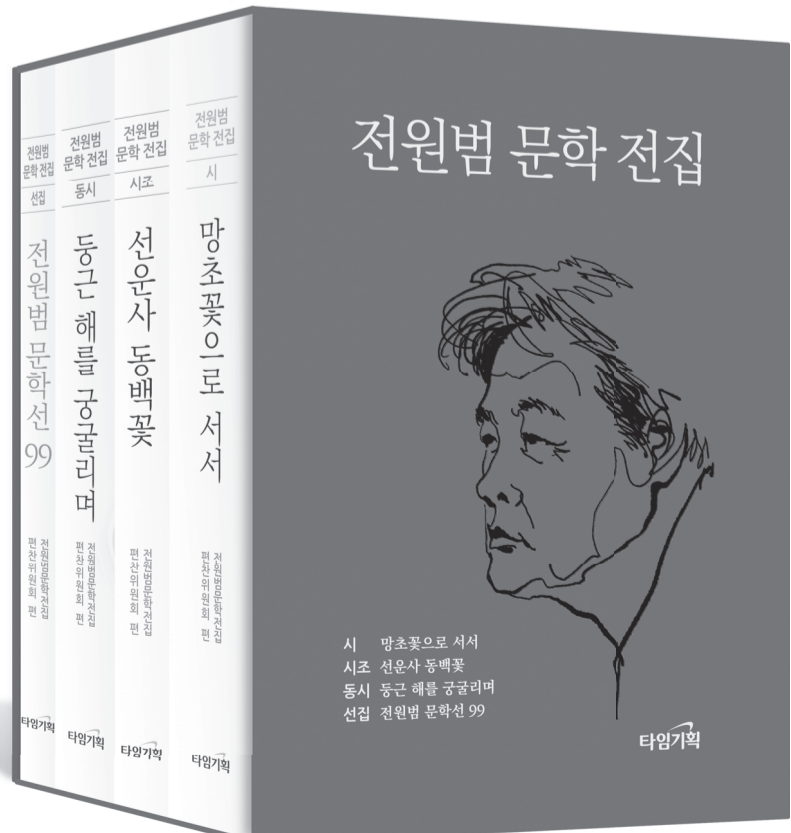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것을 확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차량을 압수할 수 있었다.

앞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상습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검청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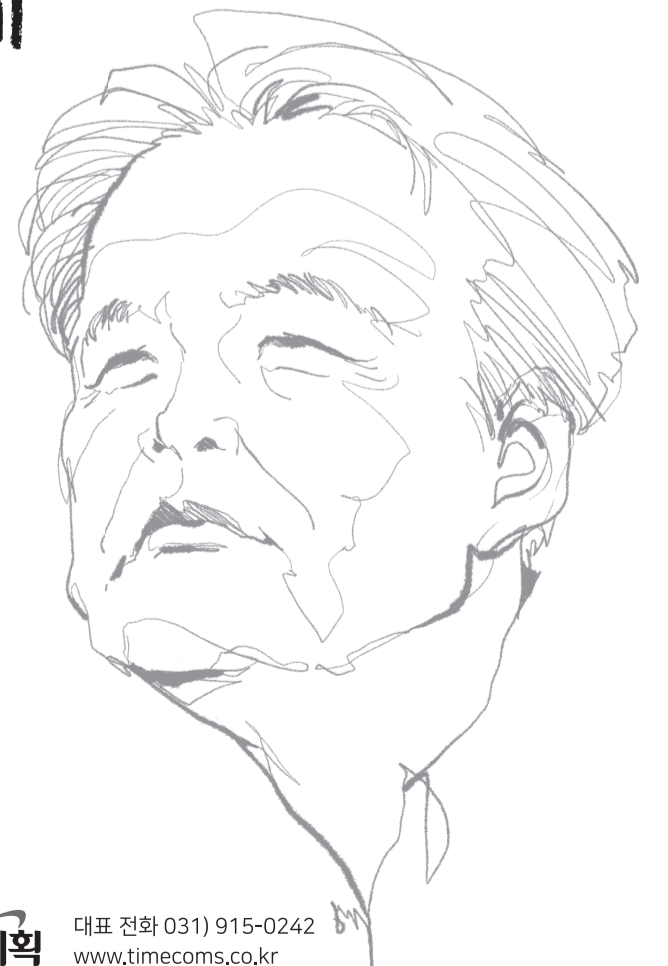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글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